

비합리적 읽을거리

李相日

성균관대 독문과 교수

‘읽을 거리’들은 원래 비합리적인 것들이 아닐까. 합리적인 줄거리를 지닌 읽을 거리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허구로 꾸며진 한에서는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물론 합리적인 읽을 거리들이 대부분이긴 하다. 그러나 어쩌다 비합리적인 읽을 거리들이 장세를 잡아 나가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나는 합리적이나 좋다거나 비합리적인 것은 나쁘다라고 편가르는 것이 아니다. 합리적인 것이 좋다면 그 반대는 불합리한 것이 된다. 그리고 실제로 불합리한 것은 좋지 않다. 그러나 ‘비’ 합리적이라 했을 때는 합리성으로 카버할 수 없는 모든 현상들을 일단 그 비합리성에도 포함시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비합리성에는 합리주의로 풀어 낼 수 없는 논리가 들어 간다.

비합리적인 읽을 거리들 가운데는 우리가 과학적 합리주의로 수궁할 수 없는 내용을 지닌 책들이 주종을 이룬다. 역사소설의 이름을 빌린 황당무계한 영웅譚, 서부활극같은 무협지류, 괴기談, 환상소설 그리고 이른바 명상 소설이라는 이름을 붙인 성인 동화들은 어쩌면 이 시대의 현실을 외면하고 싶어 하는 우리들 자화상의 투영일지도 모른다. 이런 읽을 거리들은 소설만이 아니라 장백한 정신주의자의 명상 형식을 빌린 自傳적, 혹은 고백적 선교적 에세이로 과장, 혹은 糖衣 포장되기도 하고 시류를 탄 사이버 학자의 학문업적으로 위장되기도 한다.

굳이 책만이 아니라 이 비합리적 읽을 거리들의 영향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동양철학이라는 이름으로, 마침내 그 비합리성을 신비주의 영역으로 확대시킨다. 마치 과학적 합리주의에 반항하고 보복이라도 하려는 듯이 비합리주의는 우리 생활의 구석 구석까지 위세를 떨쳐 미신타파운동마저 역류시켜 놓았다. 그만큼 占卜술사는 늘어난 가고 무당 숫자는 해방당시보다 삼십배가 더 늘어났다는 보고도 있다. 신비한 氣와 바이오 리듬에 의한 건강요법, 영양섭취, 연구소 이름의 술한 강좌설비는 바야흐로 우리가 어쩌면 퇴행성 역사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과학적 합리주의 시대에 그런 비합리적 음지의 융성은 마침내 미술이나 무용, 그리고 영화같은 예술세계에서도 활보의 단계를 넘어 횡행한 정도까지 이르렀다 한다.

야스퍼스가 말한 대로 종교나 예술이 지닌 초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각박한 현실의 합리주의 체계아래 그 종교나 예술은 살아남을 여지가 없다. 고대 제의의 맥을 이어 나온 예술은 따라서 종교라는 믿음의 오누이이듯 그 세계속에 해명되지 않는 신화의 비합리성을 간직한채 합리주의에 반대되는 집단무의식을 반영한다.

그런 반면에 예술은 또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인 사회환경과 그에 대응하는 인간의 마음을 반영하기 때문에 철저한 현실주의의 거울이 된다. 현실이 과학적 합리주의의 혜택을 받게 되니까 예술 또한 합리주의로 처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우리 문화환경이다. 그런데도 읽을 거리들 가운데 비합리성의 초월주의가 횡행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 예술자체가 신화세계의 비합리성에 구원을 찾고자 하는 이 세대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나는 절대로 비합리주의를 나쁘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퇴행적 현상이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지적하고 싶다.

뉴스 2 “출판시장 개방 절대 반대”·외

표지인물 4 한대 모아 제자리 찾은 옛이야기들
「조선조문헌설화집요」 낸 서대석교수

에세이 특집 4 격동기 청년세대들의 독서편력기

4·19세대의 청년기 독서편력 — 진덕규
유신세대의 청년기 독서편력 — 손호철
광주세대의 청년기 독서편력 — 임동화

서평 12 주장현 「굿의 사회사」 — 황루시

이상화 외 「일과 성」 — 조혜정

13 최한기 「기학」 — 허남진

한지경 「칸트와 초월철학」 — 이일수

14 이광래 「프랑스철학사」 — 강영안

커니 「현대유럽철학의 흐름」 — 이기상

15 윤병태 「조선후기의 활자와 책」 — 천혜봉

초점 16 결국은 ‘밖’이 아닌 ‘안’의 문제다 — 오관기

출판시장 개방을 둘러싼 최근의 논의를 보며

출판시론 17 출판물 우송료 지나치게 비싸다

배보다 배꼽 더 클 지경... 발송비 ‘출혈’ 만만찮아

출판화제 18 추리문학 대중화 선도하는 중심지

부산 해운대서 개관한 ‘추리문학관’

얼굴 19 사재 털어 추리문학관 건립한 작가 김성종씨

출판화제 20 한국적 신학사상 정립 위한 대역정

통권 4백호 기록한 월간 「기독교사상」

이 책 그 사람 22 「쌀과 문화」 펴낸 이춘녕교수

「바둑이야기」 펴낸 이광구씨

「세계시사만평」 펴낸 유지훈교수

「역사란 무엇인가」 새로 번역한 이연규교수

리뷰 24 전국 도서관인 큰 잔치 지상중계

지방자치시대와 도서관정책 — 유영승

도서관발전을 위한 기반정립 — 손정표

통일에 대비한 도서관정책 — 정필모

세계의 책 26 편지를 통해 보는 한 화가의 초상·외

28 독자서평

30 화제의 신간

32 신간안내

40 200자 안내

48 프리즘/재미있는 책이야기/정기구독 안내

표지사진 / 김홍진